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와 것이요 여호와와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시편 22편 27-28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9월 17일 (토) 제 1601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목회자 73%, 교회 정치참여 반대

라이프웨이, 11월대선 앞서 의식 조사...미国人 80% 반대

11월 대선을 앞두고 교회의 직간접 정치참여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종교인이 개인자격으로 정치 사회에 개입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지만, 집단조직체로서 종교단체나 기관이 어느 특정 당파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후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칭 후보의 소속 종교에 따라 종교단체간의 노골적인 대립과 갈등의 소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부터 미 국세청은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공화당 대선 후보 트

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세청의 금지 법안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특혜이자 혜택"이라고 크리스천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복음주의자들을 포함해서, 현 상태로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최근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Sorry, Trump: 3 in 4 Evangelicals Don't Want Pastors Endorsing Politicians from Pulpits: However, survey finds they also don't want pastors who do campaign to be punished, 95% 신뢰도, +/-3.6 오차율).



라이프웨이 설문조사 결과 목회자 73%가 교회의 정치참여를 반대 한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목회자들은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종교적 '넌스(Nones)'를 비롯한 크리스천들은 점점 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한다는 입장에 들어서고 있다.

'자유수호연합(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존슨 법안'을 폐기시키려는 최전선에 서있다.

<3면으로 계속>

"우리는 IS와 전투 중" ...다큐 '우리의 전쟁'

뉴스위크, 서방인 수백명 쿠르드족 민병대 합류 전투하는 이유 조명

미국의 해병대 참전군인, 이탈리아의 사회운동가, 스웨덴의 경호원. 그들의 공통점은 뭘까?

모두 같은 전쟁에서 같은 편에 서서 싸웠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시리아 북부에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맞서 싸우는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비대(YPG)에 자원입대했다. 하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로 오는 9월 9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한 영화관 앞 레드 카펫에서 처음 만난다.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시사회를 갖는 다큐멘터리 '우리의 전쟁(Our War: Meet the Western Fighters Battling ISIS With Syria's Kurds)'의 주인공 자격으로다('OUR WAR: MEET THE WESTERN FIGHTERS BATTLING ISIS WITH SYRIA'S KURDS').



쿠르드 민병대 소속인 야시르와 이젤이 불을 피우고 추위와 싸우고 있다.

올해로 6년째인 시리아 내전은 현대사의 어떤 전쟁보다 외국인 전투대원을 더 많이 끌어들이었다. 1980년대 소련-아프간 전쟁에서도 약 2만 명의 외국인이 참여했다고 추정되지만 시리아 내전은 그 수준을 능가한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안보 컨설팅 업체 수판 그룹에 따르면, 최소한 86개국에서 3만 명 이상이 IS 편에 서서 싸우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로 건너갔다. 게다가 YPG()에 합류한 약 400명을

포함해 다른 외국인 수백 명은 그 내전의 다른 편에서 IS에 맞서 싸우기 위해 조국을 떠났다.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민이 시리아 내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안간힘이다. 그들이 내전에 참여했다가 본국에 돌아오는 것도 정부로서 큰 골칫거리다. '참전 후 귀국하는'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626)522-9909
대표 박희성 목사 myong@joenchulpan.com

2면

대학을 '직업 훈련장'으로
만드는 부모들!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제3회 찬송가 보급, 찬양사역자, 찬양팀들을 돕기 위한

찬양선교음악회



▶ 바리톤 장상근



▶ 박트리오



▶ 찬양 이미지



▶ 소노리스 심어즈



▶ LA남성선교합창단



▶ KAM 코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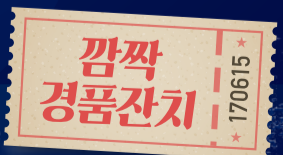
일시 2016년 10월 2일(주일), 오후 6시

장소 생명샘 교회

(18718 Grayland Ave. Artesia CA 90701)

문의 (562) 714-0691 (영육구원)

무료입장



주최 : 주사랑선교교회 (미주찬양선교회)

후원 : 크리스천비전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우리방송, 미주부흥사협회

대학을 '직업 훈련장' 으로 만드는 부모들!

워싱턴포스트, " '헬리콥터 양육' 추세 이젠 전공 선택까지 영향" 보도

"인문학을 전공하면 배고프다." 대학과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문학에 대한 인식이다. 그래서 어느새 인문학을 전공하게 되면 대학 4년이 그저 허송생활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소위 "잘 나가는 미국 부모들" 사이에는 팽배하다. 한마디로, 취업을 위해서는 경상대학이나 공대 그리고 의대나 법대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자녀들의 전공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기고가이자 조지메이슨대학 석좌교수인 스티븐 펄스타인(Steven Pearlstein)은 칼럼을 통해, 자녀의 관심사나 적성이나 상관없이 경영이나 경제 아니면 의대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잘못된 극성스런 부모들의 지나친 간섭을 지적한다(Meet the parents who won't let their children study literature: Forcing college kids to ignore the liberal arts won't help them in a competitive economy).

몇 해 전, 조지메이슨대학 학부 세미나에서 800페이지짜리 앤드루 카네기 전기 읽기를 과제로 내준 적이 있다. 과제를 내면서 과연 학생들이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많은 학생이 책을 다 읽었을 뿐 아니라 좋은 역사서를 읽을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남겼다. 학생들의 전공이 궁금해서 24명을 대상으로 전공을 물었다. 놀랍게도 역사 전공을 단 한 명도 없었고, 영문학/철학/예술 전공도 한 명뿐이었다.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부모님의 반대로 인문학 전공을 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올봄



인, 기업을 명단을 띄워 놓았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대학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대학생 수는 두 배로 늘었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인문학은 시장 점유율 면에서 약간의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 침체 속에 이른바 인문학의 핵심인 '문학, 사학, 철학(이하 문사철)' 전공자 수는 급감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중반만 해도 수여되는 학위의 17%를 차지했던 문사철 학위는 이제 고작 전체의 6% 정도로 줄었다.

하지만 직업훈련소로써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 세대는 직업과 수입에 대한 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결과일 뿐 아니라, 노동시장이 돌아가는 방식, 고등 교육과 직업 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

우선 조지메이슨대학 연구소의 2011년, 2012년 자료를 살펴보자. 경기가 막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그 시점에 인문학 전공

"인문학 전공하면 배고프다" ... 미래엔 컴퓨터 대체 직업 증가 좋은 직업은 폭넓게 사고하는 인문학 능력자에게 돌아갈 것

다른 세미나에서 조사했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만약 관심사와 적성만 고려할 수 있었다면 인문학을 선택했겠느냐는 질문에는 24명 중 10명이 손을 들었다.

대학이 직업훈련 과정이 되어 가는 현실, 학자금 대출의 부담, 불문학과와 인류학과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주지사들, 부모의 지하실에 얽혀사는 대졸자 바리스타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버지니아 주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학생들이 부모와 언론, 정치인, 그리고 동료 학생들의 목소리에 휘둘려 영문학이나 사학을 전공했다가는 빈털터리 학교 교사밖에 될 수 없다고 믿게 된 현실은 충격적이다.

이런 현상은 조지메이슨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버드대의 질 르포어 교수도 비슷한 경험을 토로한 바 있다. 미국 대학협의회의 데브라 험프리스 부회장은 "부모가 인문학 전공에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대학에서 들려온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종전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부모의 요구를 모두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가 자녀 인생의 모든 부분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양육"의 추세는 이제 대학의 전공 선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학생이 부모로부터 경영, 경제를 전공하거나 의대에 가라는 압박을 받는 것이다.

조지메이슨대의 학부 입학처장은 학부 전공과 첫 직장 간의 관계,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직업의 수입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한다.

부모들은 투자 대비 수익을 생각하고 있다. 올봄 참석했던 합격생과 부모 대상 오리엔테이션에서도 한 부모는 "사학과 졸업장에 8만 달러를 쓰기 전에 앞날이 보이

나 생각해 봐야죠"라고 말했다. 역사 과목을 좋아하던 한 학생도 "사학과 학위로는 취직이 힘들다고 들었더니" "학교나 박물관 정도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인문대에서는 학과를 홍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지메이슨대 영문학 학과 홈페이지에는 아예 "영문학 학위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라는 섹션이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영문학을 전공한 배우, 뮤지션, 판사, 정치

졸업자의 실업률(8.4%)은 컴퓨터(8.3%), 수학(8.3%), 생물학(7.4%), 경영학(7%), 심지어는 공학(6.5%)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인문학 전공자가 학력에 걸맞은 직업을 찾지 못한다는 것도 과장된 소문이다.

뉴욕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최근 졸업생은 1990년의 15%에서 2012년 20%로 증가했지만,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준이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내 나이 85세에...



은희곤 목사 (잠사량교회)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1991년 가을, 연이은 태풍으로 일본 아오모리현의 사과가 90%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애써 재배한 사과를 팔 수 없게 되자 사과를 재배하던 농민들은 깊은 슬픔과 실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한 사람이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 10%의 사과에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10배나 비싸게 판매했습니다. 마침 대학교 입학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과 부모들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는 그 이름값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순식간에 다 팔리고 오히려 더 큰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 무명의 농부는 태풍으로 땅바닥에 떨어진 90%의 사과를 의

식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라봄"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명씩 두령들을 내어 12명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 섭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극의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밭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외쳤지만,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다 메뚜기 같았다. 가나안 땅 점령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 12명이 가서 보고 온 장소와 상황과 현실이 다르지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지역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현실로만 받아들인, 떨어진 90%의 사과를 바라보며 실의에 빠진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현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10%의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진 한 무명의 농부와도 같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10명과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10명의 정탐꾼들과 청년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과 1세대 중에서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놓인 현실이 우리를 무섭고 떨리고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90%의 떨어진 사과가 우리를 실의와 절망으로 빠지게 합니까?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주는 아낙자손과 절망거와 견고한 성읍과 90%의 떨어진 사과라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순종은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42:5).

여기서 갈렙의 이야기 하나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제비 뽑기를 통하여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이때 갈렙이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성실하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제 45년이 지나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강건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45년전 그때 그 마음, 즉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45년동안 변하지 않고 45년 후에도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민13:30, 수14:12). "그날에, 45년 전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난 오늘 내게 지금 주소서"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갈렙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낙자손과 절망거와 견고한 성읍과 90%의 떨어진 사과를 바라보는 눈을 돌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과 성취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45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변치 않는, 인내하는, 상록수와 같은 믿음을 갖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내 인생 안에 성취되는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에게도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체험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며 갈렙과 같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셔서 주님의 큰 상급을 준비해 나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 다닙니다.

pastor.eun@gmail.com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6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1.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2.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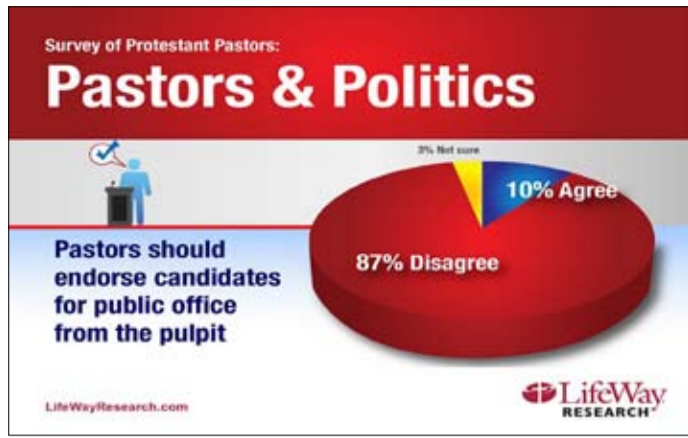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목회자 73%, 교회 정치참여 반대

(1면에서 계속)
2008년부터 해마다 '플립 프리덤 선데이'를 주관하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목회자들은 이미 2,032명으로 미 전역에 퍼진다고 있다.
반대 진영에서의 공격적인 수비 형태 역시 다양하게 진행됐다.
2012년 미중교정차분리단체(Americans United for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는 국세청이 당시 대통령 후보로 리 페리를 공개 지지한 달라스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인 로버트 제프레스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침례교회 대립된 상황을 염두해 느리게 법적 행동들을 준비했다. 즉 교회를 과연 누가 감시하고 감사할 것인가의 문제로 고민한 것이다. 그러다가 양측 입장



차이로 인한 법정 문제로 '모라토리움' 즉 일체의 행정, 법적 소송을 중지했다.

"우리는 IS와 전투 중" ...다큐 '우리의 전쟁'

(1면에서 계속)
하지만 지금까지 시리아 쿠르드족('로자바'('서부'라는 뜻))로 알려진 준자치 구역에 거주하는 국가 없는 민족을 돕기 위해 무기를 든 자원자들은 정부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쿠르드족 민병대는 IS로부터 로자바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시리아 북부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쿠르드족 독립국 건설도 꿈꾼다.
'우리의 전쟁'은 젊은이 3명의 행적을 추적한다. 미국인 조슈아 벨(31), 이탈리아인 카

림 프란체스치(27), 스웨덴인 라파엘 카르다리(28)는 2014-2015년 각각 몇 달 동안 YPG에 합류해 싸웠다. 이 다크멘터리는 미국과 이탈리아, 스웨덴에서 가진 인터뷰와 터키 국경에 접하는 쿠르드족 거점 도시 코바니와 텔아비어드의 전쟁터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혼합했다.
벨은 줄담배를 피우는 자신 만만한 청년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3차례 파병됐던 참전군인이다. 모로코계 이탈리아인인 프란체스치는 공산주의자 복서로 전투 경험이 없으며 전쟁 비디오 게임과 체스

를 좋아한다. 이라크의 쿠르드족 부모에게서 태어나 스웨덴에서 성장한 카르다리도 군인으로 싸운 경험이 없으며 IS의 선전 동영상들 본 뒤 로자바로 향했다.
3명의 공동 감독 중 베네데타 아르겐티어리는 "그들의 내면에 있는 뭔가가 전투 참여를 부추기지만 시간이 흐르면 서 쿠르드족이 싸우는 이유를 진정으로 믿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IS 격파만이 아니라 로자바를 독립국으로 만드는 꿈도 그 이유 중 하나."
이 다크멘터리에서 프란체스치와 카르다리는 전차를 타거나 저격수로 활동한다. 그들은 체포된 지하디스트 심문 장

면과 IS 전선이 지적인 곳에서 밤의 어둠 속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느끼는 공포를 이야기한다. 벨은 전쟁 지역에서 찍힌 영상이 없다. 그는 시리아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뒤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뉴욕 시에서만 촬영했다.
지난해 10월 시리아에서 귀국한 벨은 베네치아의 1100석 살라 그란데 극장에서 열리는 시사회에 전통 금색 쿠르드족 의상을 입고 참석할 계획이다. 그는 언젠가 시리아에 돌아가 쿠르드족의 전쟁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대학을 '직업 훈련장'으로 만드는 부모들!

(2면에서 계속)
또한, 대학 학위가 필요 없지만 임금 수준이 괜찮은 일자리를 얻은 대학생도 전체 졸업생의 3분의 1가량이었는데, 과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대학을 잘 졸업한 젊은이가 전공에 걸맞은 일자리를 찾아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인문학 전공자들이 평생 저소득으로 고통받는다든 이야기도 어느 정도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이른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전공자와 경영학 전공자의 중위 연봉이 6만-8만 달러로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문학 전공자의 평균 소득인 5만 달러 역시 미국 중산층의 범위에 여유 있게 들어가는 수준의 수입이다.
역사, 문학 전공자 중 소득 상위 25%는 오히려 수학, 과학 전공자 평균보다 수입이 높으며, 경영학 전공자 중 소득 하위 25%의 수입은 오히려 행정, 정책학을 전공한 이들의

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전공뿐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잘못이다. 예일대 경제학과에서 나온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STEM 전공자들의 소득 프리미엄의 절반은 전공 때문이라기보다 이들의 높은 지능, 성실성 때문이다. 즉, 어떤 전공을 선택했어도 성공했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전공 선택이 전부도 아니다. 무사히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우선 관건이다. 조지타운대의 칼 뉴포트 교수는 학부 생활에 대한 수백 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단순히 부모의 기대에 따라 전공을 정한 학생은 학교생활을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학생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 전공과 커리어 간의 복잡한 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지만, 부모들은 더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물리학을 전공했다고 다 물리학자가 되지

않고,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다 작가나 문학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헤지펀드에도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기업 임원들의 학부 전공 역시 다양하다. 전공과 직접 연관이 있는 직업을 갖게 되는 사람은 27%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매년 신학기, 회계학을 전공하기로 마음을 굳힌 신입생들을 만나는 일은 우울하기 짝이 없다. 고작 18세인 젊은이들이 세익스피어나 철학, 경제사상사의 세계를 탐험할 기회를 포기한 채, 평생을 회계에 헌신하기로 마음먹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원래 미국 대학에서 전공을 정하는 이유는 커리어 선택과 거리가 멀었다.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연구, 분석, 소통 방법과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법, 시간 관리법과 끈기를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고위 기업인들이 대졸 사원에게 기대하는 자질은 이런 것들이다.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 성공한 기업들이 찾는 인재는 한 분야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재빠르고

호기심이 강하며 혁신적인 사람이다. 초보 회계사와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변호사, 금융 애널리스트들의 일은 이미 아웃소싱되고 있고 머지않아 컴퓨터로 대체될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폭넓게 사고하고 관습에 도전하는 사람, 즉 인문학 교육의 목적에 충실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대학 등록금이 치솟는 시대에 인문학 교육이 추구하는 "지적 탐험"은 어울리지 않는 사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대중이 지적 여가를 누릴 수 없고 엘리트 교육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야말로 지독하게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라고 말한 역사학자 조한 님(Johann Neem)의 말이 동의한다.
부족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전공자들이 인생의 의미만을 생각하며 4년을 허송세월한다고 믿는 부모님들께 감히 말씀드리다. 열정을 가진 젊은이라면 인생의 의미와 생애 소득 극대화를 혼동할 일은 없다고!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 148편: 광야에서도 보석을 거두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아!

인생을 살 때 먼저 우리 마음에 사망의 생각을 채우느냐? 생명의 생각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판단에 영향을 끼치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 같은 문제의 길들을 지나야 하는 길이기엔 우리 마음에 사망의 생각이 가득하면 인생에서 사망의 것이 가득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생애 문제에 책임을 주고 탓하면서 계속하여 마음에 육신의 생각을 채우는 일만을 하게 되어 어둠의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생명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우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문제로 인하여 사망의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의 만족과 기쁨을 현실에서 거둘 수 있을 때가 있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또 마음에는 사망의 생각이 채워지게 되고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불안한 인생을 보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은 인생의 광야 길을 걸을 때에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생각을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에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법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타나서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환경에서 먼저 만족을 채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기근이 없는 종만하신 생명의 은혜를 수고하여 채우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어둠 밤에서도 별이 보이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환경에서 어떠한 일들에서 구하려고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주 기근이 심한 곳에 내리는 비와 같이 자주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마음에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생의 삶에서 의식이 어둡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피해 의식을 가지게 되고 사물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에덴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 그들은 사물을 행복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망의 것이 채워지면 그 영향으로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이 세상은 넘치는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들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즐기고 영광을 돌리는 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생명의 것을 마음에 채우는 열심을 해야 합니다.

이 우주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산을 보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산속에 들어가면 흐르는 물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스쳐가는 바람소리도 들립니다. 믿음으로 눈을 열어보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습니다. 복되게 볼 줄 아는 것이 곧 자기의 복입니다. 슬프게 보지 말고 복되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인데 거기에 얼마나 깊은 진리와 철학이, 신앙이 있는가를 캐낼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까 참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천체, 저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땅에 있는 짐승들, 바다에 있는 고기 떼들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 파도 소리도 시편에 쓰여 있듯이 철썩 철썩 박수를 하면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주 전체에 천사까지 포함해서 가장 절실하게 찬양해야 할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가득하게 채우는 수고를 하므로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보석과 같이 뿌려져 있는 인생의 길에 바라보고 누리고 거두고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sangdkim@yahoo.com

뉴욕교회협 제 43회기 정·부회장 감사 입후보 등록 공고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제43회기를 이끌어 나갈 회장과 부회장, 감사에 입후보 하실 분들은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등록기간: 2016년 9월 19일- 9월 23일(금) 정오 12시까지
- 등록장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사무실
244-97 61 Ave. Little Neck, NY 11362
Tel.(718)279-1414, Fax.(718)279-5838

* 제 11조(자격) *

-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목사, 회장 및 부회장은 본 회 가입 5년 이상된 자로 하되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
- 2. 목사 안수 받은지 10년 이상된 자로 한다.
- 3. 뉴욕에서 담임 목회 만 5년 이상된 자로 한다.
- 4. 본 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 5.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6. 회장과 부회장 출마는 각각 3년 이내로 제한한다.
- 7.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 할 수 없다.
- 8.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제1항, 제4항, 제5항에 준한다.
- 9.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례로 한다.
- 10. 입후보자는 영주권 이상 소지자로 한다.
- 11. 입후보자는 본회를 위한 공헌도가 있어야 한다.

* 제 12조(등록서류) *

- 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 사무국에 접수해야 한다.
- 1. 등록원서 1통(교회 소정양식)
- 2. 소속 교단 추천서 1통(소정양식)
(단, 독립교회 회원은 중경회장단 2인 이상 추천서로 대체)
- 3. 본회 회원교회 10교회 추천서
- 4. 중경회장단 2인 이상 추천서
- 5. 이력서 1통(사진부착, 가족사진 1매)
- 6. 입후보 소견서 1부
- 7. 회장, 부회장(목사) 입후보자 등록금 US\$3,000.00
평신도 입후보자 등록금 US\$2,000.00의 납입증명서 1통,
감사 입후보자는 등록금 없음(서류만 제출)
- 8. 목사 안수 증명서 1통(Copy)

- 9. 여권과 운전면허증 (copy)
- 10. 교회 현황서(최근 주보 4매)
- 11. 감사 입후보자는 3, 4, 6, 10항을 면제한다.
- 12. 이력서 및 모든 서류의 허위 또는 문서 위조 발견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한다.

* 제13조(소견발표)

입후보자는 선거 직전 총회에서 3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 할 수 있다.

*제 14조(선거운동)

본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언론 토론, 광고 및 홍보행위와 선관위가 정한 규정 외에는 일체 금한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244-97 61 Ave. Little Neck, NY 11362
Tel.(718)279-1414, Fax.(718)279-5838
E-mail:nyckcg@gmail.com / www.nyckcg.org

회장 이종명 목사 총무 박진하 목사 서기 한준희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최창섭 목사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셋이 함께하는 영적 등정

에베레스트 산 등정은 모든 산악인들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룬 인류 최초의 산악인들은 해발 29,028피트(8848미터)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1953년 5월 29일에 등정한 뉴질랜드인 에드먼드 힐러리(Edmund Hillary)와 네팔

인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Tenzing Norgay)입니다. 많은 시선이 서양인 힐러리에 쏠렸을 때 힐러리는 셰르파 텐징의 도움을 없이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를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인으로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

한 고상돈씨도 셰르파였던 펌바 노르부(Pemba Norbu)의 도움으로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온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기 위해서는 고산 지대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무산소 등정이 가능한 셰르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외부 산악인들은 북동부 내팔에 살고 있는 셰르파족의 산악인을 고용하여 짐 운반과 길 안내의 도움을 받습니다. 산악인들이 셰르파의 도움 없이 에베레스트 산 등정이 불가능한 것처럼, 신앙인들도 영적인 셰르파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는 결코 신앙의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가 없고, 일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고, 상대적 진리로 오염되고 세속주의와 혼합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산악인들에게 반드시 셰르파가 있듯이 신앙인들에게도 탁월한 영적 셰르파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분이 '승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고 성숙한 신앙의 길로 안내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

니하리라' 하시며 영적인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오를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인간 셰르파는 길을 잘못 안내할 수 있고, 힘들다고 도망갈 수 있고, 돈을 더 달라고 때를 쓸 수 있고, 예상치 않은 눈사태로 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셰르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수나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 분이 계확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 분이 에베레스트 산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정상에 오르려고 애쓰시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원하시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 받기를 원하시

나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등정의 길에서 누구의 도움과 안내를 받고 계신가요? 반드시 완전하고 완벽한 신앙의 셰르파이신 예수님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훈련생인 여러분과 인도자인 목회자가 최고의 신앙의 셰르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에베레스트 산을 향한 등정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 아브라함, 노아, 모세, 라합,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신앙의 정상에 올라 신앙의 성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전 5:12).

푸 / 른 / 초 / 장

이정수 목사
(새힘교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창35:1).

리가 하는 것을 보던 축복의 장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그 베엘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던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엘로 올라가서 단을 쌓

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지상 낙원이 라고 할 만큼 부요하게 잘 사는 덴 마르에서 청년들이 호화스런 파티에 들어갈 때 반드시 옛날 선조들이 고생할 때 먹던 까만 호밀 빵을 한 쪽 씹 먼저 쓴 물과 함께 먹

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던 그 은혜의 때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베엘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삭개요가 가끔 말없이 집을 나가곤 해서 그의 아내가 뒤를 밟아 보니 까 전에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던 것을 생각하고 그 나무에 물을 주고 그 나무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이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처음 은혜 받고 감격스러웠던 때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의 열심과 첫사랑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2:4, 5에 "나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매일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겸손히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대왕이 되고 명성이 높아져도 이새의 딸과 아들이요, 양치는 목동이요, 비천하고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였던 자신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삼하 7:8, 9에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권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존귀

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신8:12-14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신8:17, 18에서는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기차 안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기차 안에는 백인과 흑인 노예들이 타고 있었는데 흑인 노예가 말을 안 듣는다고 갑자기 백인이 칼을 집어 들고 찌르려고 하자 같이 타고 가던 선교사 한 분이 재빨리 손으로 막아서 위기를 모면케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손은 칼에 찔려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그 백인에게 오하려 노예의 값을 치러주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예는 너무 고마워서 선교사한테 평생 동안 종노릇을 하겠다고 간청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같이 지내던 중 노예는 가끔 선교사의 은혜를 잊고 그를 거역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선교사가 아무 말 없이 자기의 다친 손을 펴보이면 그 노예는 다시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해서 누그러진 듯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 고난 받던 때와 하나님을 만난 때, 그리고 축복 받던 때를 기억하여 교만하여지지 말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shch8291@anmail.net

기억하며 삽시다

(창세기 35장 1-5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지난 일을 잊어버리기도 잘 해야 하지만 한편 옛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기도 잘 해야 합니다. 옛날의 죄악 된 습관과 생활은 깨끗이 청산하고 잊어버려야 하지만 또 어떤 것은 기억해야 더욱 유익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신명기 32:7에서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신명기에는 "옛날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부요해서 잘 살게 되거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생활을 하려면 옛날을 잘 기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 베엘은 어떤 곳입니까? 죽이려고 덤벼드는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자던 고난의 장소요, 거기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볼으로써,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1. 고난 받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35:3에서 야곱은 "베엘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하면서 옛날 고생하던 때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많은 처자식들을 얻고 많은 재산을 벌어서 부자가 된 때문으로 옛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형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돌베개 베고 잠자던 때를 다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신앙도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던 옛날을 회상케 하기 위해서 베엘로 올

고 나서야 들어가 파티를 즐긴다고 합니다. 옛날 선조들의 고생과 불행 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현재 자신들의 편안함에 감사하고, 다시는 그런 불행과 고통의 때가 없어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그것을 통해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그 고난이 다시 없기를 경계함으로써 보다 지혜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2. 하나님을 만나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창35:1)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피난 가던 중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하나님을 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의 하나님을 잊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베엘로 올라가라고 하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인지 모릅니 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잊고 감격했던 그때를 잊지 말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삽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시다. 3. 축복받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이만큼 번창하고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임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축복받던 베엘로 올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면 우물대고 교만해지다가 하나님의 꺾으심을 당케 됩니

케 만들어 주리라"고 하였고, 이에 다윗은 삼하 7:18에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와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 이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하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유명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높은 사람이 되어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에 따른 것임을 늘 기억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도 잠깐 마귀의 시험에 빠져 교만했다가 하나님이 꺾히 보신 적이 있습니다. 대상 21:1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 보고 군대의 수가 많은 것을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21:7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꺾으시여 이사가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했

담임목사 청빙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에서는 현 담임목사의 시무가 2017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목회의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실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격

1.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WEMA(세계복음선교연합회)에서 안수 받으신 분
2. 정규 신학대학 이상 졸업자, 목사 안수 후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
3. 브라질 선교에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
4. 복음적인 교리가 분명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사진첨부, 학력, 목회 경력, 일반 경력)
2. 목사 안수 증명서,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및 최종학위 증명서 각 1부
3. 목회 비전 계획서 1부 (목회동기, 철학, 비전, 바람직한 교회상)
4. 자기 소개서 (본인 및 사모를 포함한 가족 - 사진포함)
5.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편 (포어 설교 가능하신 분은 1편은 포어 설교 제출)
6. 연령 (40~60세)
7. 추천서 2부 (각 추천인의 밀봉 날인과 추천인 연락처 요망)
8. 건강 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제출방법

1. 우편주소 : R. Mamoré 71 - Bom Retiro, SP - Brasil CEP : 01128-020
2. E-mail : andrejhong@hotmail.com (Cel 55-11-99126-8574) 청빙위원회 서기 홍정표
3. 서류마감 : 2016년 9월 30일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이메일로 먼저 보내주시고(첨부파일 : 서류 - PDF파일 형태, 설교 동영상 - 동영상 파일 혹은 MP3), 우편(마감일 도착 전에 한함)으로도 보내 주셔야 합니다. 이메일로 모든 서류를 보냈음을 확인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 봉투에는 반드시 '담임목사 청빙 지원 서류 제출'으로 표기 부탁드립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서류심사에 통과된 분은 추가서류와 면담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

웨슬리안 교단에 소속된 "새벗교회"에서는 목회의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실 담임 목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 자격

1.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유자.
2. 감리교, 성결교 WEMA (세계 복음선교 연합회)에서 안수 받으신 분.
3. 정규 신학대학 이상 졸업자, 목사안수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사진첨부, 학력, 목회경력, 일반경력).
2. 목사안수 증명서,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및 최종 학위 증명서 각 1부.
3. 목회 비전 계획서 1부.
4. 자기 소개서 (본인 및 사모를 포함한 가족 - 사진포함).
5.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테이프 1편.

○ 제출방법

1. 우편주소: New Friends Wesleyan church
174 Old Sutton Road, Barrington Hills, IL 60010
2. Email: andrew.chweh@gmail.com
3. 서류마감: 2016년 10월 31일 (월) 까지

○ 기타사항

1. 제출서류를 Email 로 먼저 보내주시고, 우편으로도 보내 주셔야 합니다.
2. 봉투에는 반드시 "담임목사 청빙 지원 서류재중"으로 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서류 심사에 통과된 분은 면담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벗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일동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미국의 미래, 2016년 11월 대선에 달려있다(2)

지난번에 이어 미국이 지금 "최악의 상황"인 상태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금이 "최악의 상황"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과 성경적 세계관의 기준들을 무시하고, 거절하며 모독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미란 하나님의 기준, 성경에 나온 기준과 원리원칙들을 준수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그것에 가장 가까운 것, 또는 성경말씀대로 회복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을 우리의 최선을 다해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해 선택

의 말"까지 만들어 축하연을 열어서 축하했는데, 최초의 게이 커플 프로포즈가 2012년에 백악관에서 있었다. 당시 백악관에 모인 친동성애 정치인들과 운동가들에게는 기쁜 뉴스였으나, 자녀들의 정체성에 혼돈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시민들과 다음세대에 본을 보여야 할 백악관에서 시행하는 것에 보수공화당 의원들은 많은 우려와 반대를 표하였다.

2015년 미국 역사상 동성결혼이 최초로 미전역에 합법화 될 동성결혼합법화로 인한 Domino effect와 파장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다. 오

인사와 디렉터)로 고용하였다.

2009년 9월 미국 최초의 "Openly Gay U.S. Army Secretary" 공공연히 자신을 게이라고 알린 Eric Fanning을 미국 육군참모총장으로 뽑았다.

2009년부터 오바마 대통령과 정부는 미 군대에 "Don't Ask, Don't Tell"이라는 법을 만들어 동성애우호운동을 이미 펼치며, 군대전체에 친동성애 정책을 여러모로 강화시키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육군총장을 동성애자로 미국역사상 처음으로 임명한 것이다.

2016년 3월에는 Raffi Freedman

들까지 같은 범령을 따르라는 협박 편지들이 오고 있다.

"All Gender Bathroom Bill 화장실법안": 0.3%도 안되는 성전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미국인의 99.7%의 일반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화장실/탈의실/사위실을 남자 여자 혼용으로 만드는 법안. 이 법안으로 인해 십대들과 20대들의 "정체성"의 혼돈과 심적 혼돈은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지 큰 기도제목이다.

2016년 5월 23일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민주당)는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의 '신앙자문위원

기독교 보수파 정치인들과 오바마정부 민주당과 치열한 영적전쟁 중 "최선의 선택" 할 수 없을 땐 성경대로 회복될 "가능성" 쪽 택해야

야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지난 오바마 정권(민주당)이 7년간 미국 내에서 실행한 교육, 문화, 사회, 정치적 정책들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과 결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신앙의 자유, 진정한 인권의 자유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를 보면 객관적으로 사실이 근거하여 정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을 송두리 채 흔들 어놓은 법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속한 오바마 정부(민주당)에서 그동안 어떤 법안들이 통과되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나온 사악한 법안들은 너무 많아서 짧게 지난 1년반 동안 결정된 것들 중 highlights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내려진 정치적 결정들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백악관 내의 최초의 게이 커플 프로포즈

오바마의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매년 백악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파티와 "LGBT Pride Month-동성애 긍지

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민주당)의 범령으로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태어난 성별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성별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하도록 오바마 정부의 범령을 준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친동성애 교육으로 "동성애자"가 되는 십대들이 늘어나면서 그 결과로 CDC에 의하면 2014년 13-24세의 에이즈 감염이 80%로 나왔으며, 2005-2014년 13-24세들이 새롭게 에이즈 감염된 통계조사에 의하면, 인종(ethnic group)에 따라서 가장 작게는 56%에서 높게는 87%까지 감염이 되었다고 한다.

2015년 8월 미국역사상 최초의 성전환자 남성을 백악관 인사관리 중재자리에 앉았다.

Raffi Freedman-Gurspan(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은 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성전환자 인권단체)에서 정책을 책임지던 사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이 사람을 뽑은 것에 대해 "미국을 더 미국다워지게 하기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다" 라고 발표하며 Raffi Reedman-Gurspan을 outreach and recruitment Director in the White House Office of Presidential Personnel(백악관

Gruspan의 직책을 한층 높여서 전적으로 백악관과 동성애/성전환자들의 연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Liaison 역할을 맡게 함으로, 앞으로 백악관에 더 많은 동성애/성전환자들의 정치적 연결을 시키게 되며, 미 전역에 그들의 권리와 인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다리역할을 하도록 힘을 더해줬다.

2016년 3월에는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인 미국 교육부 장관직에 매우 진이슬람이며 자유주의로 잘 알려진 John B. King을 뽑았다. John King은 직책을 받자마자 미국 전역 학교 안에서 무슬림 학생들이 차별 당하지 않도록 무슬림 학생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금 기독교 보수파 정치인들과 오바마 정부인 민주당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중!

2016년 5월 13일 오바마 정부(민주당) 및 U.S. Department of Education)는 미국 전역에 있는 공립학교들에게 "All Gender 화장실 법안"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진하는 편지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부의 자금을 받아 학생들에게 장학금/학비를 보조하는 크리스천학교

(Advisory Council on Faith)에 미국 최초로 "트랜스젠더 운동가"인 82세의 Barbara Satin(본명 David Satin)을 임명했다. 그는 아이들 3명의 아버지 카톨릭신자였지만 60세 좀 넘어서 여성이 되기로 결정하고 지금은 United Church of Christ에서 교파단체(denomination's Executive Council) 신앙이사회를 맡아 활발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 외에 현재 오바마 정부에서 말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뇌시키고 있는 친이슬람 정책도 엄청나다(다음 회에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이지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 시키느니라"(고후10:4-5).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현재 신학교 목회학 석사과정에서 입학하여 공부하는 신학생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느낍니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과 기타 학적인 내용들을 공부도 하지 않자 장래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LA에서 유전도사

A: 지도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전도사님을 격려합니다. 교회지도자의 길은 목사가 되는 길도 험난하지만 목사 되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짐 심발라(Jim Cymbala) 목사가 쓴 "앞드려야 한다"는 책을 보면 "미국에서는 매년 1500명의 목회자가 교회의 분란이나 영적소진, 혹은 도덕적 실수로 목회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50개주에서 하루에 한명씩 사라지는 꼴입니다. 그러한 하면 목회현장에 뛰어드는 신학교 졸업생 80%가 5년 안에 목회를 그만두고 현재 목회중인 목사의 50%가 다른 일자리가 나타나면 당장 떠날 만큼 낙심 중에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102페이지).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길은 험난 길이며 영적 전쟁이고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소명을 확인하고 앞드려 성령충만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중요한 것이 인성 훈련이라고 봅니다. 명검은 칼도 중요하지만 칼집도 좋아야 합니다. 같은 실력이고 칼집은 인격이

지도자는 인성훈련 중요...진실성 순종 말씀 검증돼야

라 할 수 있습니다. 풀러신학교에서 리더십과 신학연강교육을 맡아서 가르치는 로버트 클린턴(J. Robert Clinton) 교수는 The Making of a Leader(영적지도자 만들기, 이순정 목사 역)의 책에서, 지도자는 실력 이전에 인격이 필요한데 지도자의 인성 즉 인격을 시험하는데 중요한 3가지 검증(check)을 지적했습니다.

첫째가 진실성 검증(Integrity Check)입니다. 진실성이란 도덕규범, 신실성, 정직성 따위의 가치에 대한 비타협적인 집착, 속임수나 인위적인 것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되든지 사회지도자가 되든지 이 인테그리티 즉 진실성과 성실성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미국에서는 이 인테그리티를 매우 중요시 합니다. 남을 적당히 속이거나 곤란한 상황에서 슬쩍 거짓말해서 넘기기 쉬운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진실성은 지도자의 인성개발의 초석이고 뿌리와 같습니다. 거짓말을 쉽게 잘하는 자는 지도자의 기준 미달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별명이 20%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20%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둘째가 순종검증(obedience check)입니다. 장차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순종의 면에서 영향을 미치려면 먼저 자신이 잘 따르고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내 위에 세운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그 권위 밑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순종적인 면에 검증이 된 사람이 남을 잘 지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말씀검증(Word Check)입니다. 지도자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청중들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개발도 해야 하지만 도무지 말씀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지도자의 길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

On Campus Courses

2016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19-23(9월 19 -23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s(세계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Sept 26-30(9월 26 -30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Oct 3-7 (10월 3-7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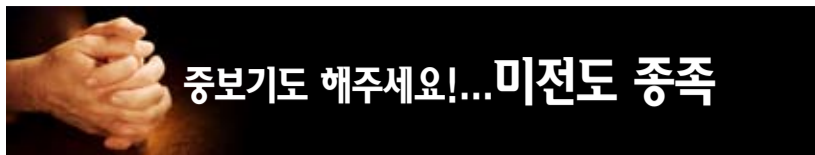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북한의 한족(HAN CHINESE)



중국 본토 전체 인구의 대다수는 한족, 또는 만다린 중국인들이다. 그들의 언어는 쿠유어(Kuoyo, 만다린어)이며, 이 쿠유어는 중국-티벳어계(Sino-Tibetan language)에 속하는 중국어의 한 종류이다. 한족은 오랜 세월을 걸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중국본토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다. 그래서 현재 그들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살게 됐다.

북한에 살고 있는 한족의 경우

그 수는 약 17만명 정도지만 이는 북한 전체 인구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북한 전체 영토의 4/5 정도는 산악지대이며 이 지대를 제외한 농업과 산업이 가능한 나머지 땅에서 북한의 전체 인구가 살고 있다. 기후는 겨울의 차가운 시베리아 대륙풍만 제외하면 뉴잉글랜드 지역의 기후와 유사하다. 사슴, 영양, 야생 비둘기, 호랑이와 같은 야생동물들도 서식하고 있다. 북한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한족은 자신들의 중국 유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문화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했다.

삶의 모습
2차 대전 이후 북한은 농업국가

에서 산업국가로 변화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전력공급이 충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산업화를 추진하던 때에 북한의 많은 한족들이 산업도시들로 이주해왔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지역 산업으로 꼽을 수 있는 3가지 분야는 강철과 철의 생산을 포함한 철강산업, 산업 및 농기계 산업, 방직업이다.

북한에서 철도는 도시간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여겨진다. 반면 자동차는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교통수단 발달을 위해 그리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 도로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포장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은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다.

1950년, 한족의 결혼은 반드시 중매혼이 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의 만다린 법이 통과됐다. 또한 이 법의 통과로 인해 신부를 사기 위한 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여자들도 이혼을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허락됐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한족사회에 있어서도 사랑을 기초로 한 결혼이 이상적인 결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성년자의 결혼은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부의 가족이나 신랑의 가족이나 어느 쪽이든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한족에게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학교공부를 잘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으로 인식하며 방과후 시간에도 공부할 시간을 갖는다. 2000년 넘게 한족들은 체액균형(humoral balance) 이론을 발전시켜왔는데, 이 이론은 신체 안에 있는 피, 점액, 담즙, 흑담즙이라는 네 가지 액체들의 균형에 대한 것이다. 치료를 위해 침이나 자침으로 자극하는 것은 이러한 이론의 결과이다. 오늘날 침법은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서구 나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침 치료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절하고, 고

통을 덜어주며, 수면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한족들은 자신들만의 중국 토속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즉, 가족간의 강한 유대관계를 중시하며, 중국에서 한 가정 한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과는 반대로 한족사회에서는 자녀들의 출산을 환영하고 있다. 한족의 민족 성향은 자기 신념과 의지가 강하면서, 융통성이 있고, 근면하고 검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앙
북한에 있는 한족의 3/4은 무종교이며 15%는 무신론자다. 이러한 높은 무종교 비율은 공산주의 정부가 모든 종교 활동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국 민족신앙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의 세계로 떠나기 전에 썩지 않고 남아있는 해골이나 뼈에 머물면서 이 세상을 떠난다고 믿는다. 즉, 그 영혼들이 마치 살았을

때 이 세상에서 생활한 것처럼 죽은 후에도 영혼의 상태로 이생을 떠돌며 생활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렇게 떠돌며 생활하던 영혼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조상의 영혼"(ancestral spirit)으로 모시는 나무나 종이로 만든 영혼 위패에 와서 쉬다고 믿는다. 만약 이러한 떠도는 영혼들을 달래지 않으면 이 영혼들이 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한족들은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북한에 있는 16만7천명의 한족 중에서 기독교인은 200명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다린어로 된 기독교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들을 위해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하나도 없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을 접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첫걸음은 기도일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제24회 세계오순절대회 브라질 상파울루서 개막

3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오순절교회의 화합인 '제24회 세계 오순절대회(PWC)'가 7일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브라질하나님의성회 본부교회(조세 웰링턴 목사)에서 개막했다. 5천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가한 대회에서 오는 10일까지 '성령운동을 통한 교회 성장과 부흥'을 주제로 소통하며 구체적인 방법 등을 모색한다.



개막식에는 세계복음연맹(WEA)에선 에프레이멘 테데로 총무를 대신해 브라이언 스티러 국제대사가, 세계교회협의회(WCC)에서 올라프 픽셀 트베이트 총무를 참석했다.

이날은 1822년 브라질이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기념일로 도시는 한산했다. 하지만 PWC 현장은 성령을 갈구하는 이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그 열기는 십자가 퍼포먼스를 통해 구현됐다. 개막식 첫 순서로 브라질 오순절교회 어린이 2000여명이 찬양했다. 이들은 파란색 조끼를 입고 무대 위가 아닌 무대 아래에 십자가 모양으로 줄 서 노래했다. 이어 입장한 기수단도 역시 십자가 모양으로 줄을 섰다. 십자가는 "나는 죽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의미했다."

세계오순절협의회(PWF) 프린스 구너랏남(말레이시아 갈보리교회 목사) 회장이 시편 133편을 본문으로 강연했다. 그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성령의 기쁨 부음이 있어야 한다"며 "기쁨과 기쁨부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앞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회를 주관한 조세 웰링턴 목사는 참석자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인사했다.

둘째 날엔 PWF 자문위원인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주강사로 나섰다. 그는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을 토대로 목회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결국 유럽과 미국의 쇠락하는 교회처럼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열심 기도해야 한다"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장 비결도 기도"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바쁜 목회자와 지도자일수록 더 기도해야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또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며 "그냥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에는 PWF 자문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프린스 구너랏남 목사가 회장에 재선됐고, 이영훈 목사가 PWF 자문위원으로 앞으로 3년간 더 활동하게 됐다. 차기 PWC 일정도 확정됐다. 제25차 PWC는 2019년 8월 27-30일 캐나다의 퀘벡에서 '스프릿 나우(Spirit Now)'라는 주제로 열린다.

오순절운동은 초대교회에서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를 재현하려는 운동이다. 세계복음연맹(WEA)을 주축으로 하는 복음주의 운동과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중심으로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과 함께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3대 운동 중 하나다. 오순절 운동은 100년 이상 지속돼 왔으며 최근 남미를 중심으로 교회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전세계 아동 2800만명 터전 잃고 피란 중

잇단 분쟁으로 전세계 아동 2800만명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피란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유니세프(UNICEF)는 7일 보고서 '뿌리째 뽑힌



(Uprooted): 난민·이주 아동이 처한 커지는 위기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전과 분쟁 때문에 거주지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은 2800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00만명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100만명은 난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1700만명은 국경을 넘지 못한 채 '역내 난민'으로 머물고 있다.

홀로 국경을 넘는 아동도 크게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10만명이 78개국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다. 아동 난민의 경우 이주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의사, 탈수, 영양실조에 더욱 취약하다. 인신매매, 강간, 살인에도 쉽게 노출된다. 난민으로 정착하더라도 차별과 제도포비아(이방인 혐오증)가 기다리고 있다.

앤서니 레이크 유니세프 총재는 "지난해 익사한 채 해안가에 떠밀려온 에일란 쿠르디의 지울 수 없는 이미지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며 "이제 연민을 넘어 전 세계 아동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난민이 마주한 현실은 가혹하다. 같은 날 영국 이민부는 난민캠프가 설치된 프랑스 항구도시 칼레에 장벽을 건설키로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항구와 연결된 도로를 따라 길이 1km 높이 4m의 장벽이 이달 중 착공, 올해 안에 완공될 전망이다.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이곳에서는 도버 해협을 건너는 트럭에 올라타려는 난민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오바마, 첫 무슬림계 연방판사 지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무슬림계 인사를 연방판사직에 지명했다.



허핑턴포스트는 7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무슬림계 아비드 리아즈 쿠레시를 워싱턴DC 연방판사로 지명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는 "미국의 법정 임무 위해 쿠레시를 지명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며 "나는 그가 미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정의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만 아 쿠레시가 최종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무슬림계 연방 판사가 탄생하게 된다.

파키스탄계 무슬림인 쿠레시는 현재 워싱턴의 법률 회사 리담 앤 왓킨스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의료 사기와 보안 위반 분야의 전문가다. 그러나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쿠레시의 취임 가능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9·11테러 15주년...아직도 아들을 떠나 보낼 수 없다

약 3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테러 15주년인 11일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뉴욕 맨해튼의 월드트레이드센터 자리, 일명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의 국립 9·11 메모리얼박물관에서는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 8시 40분부터 미국 국가를 부르고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는 행사가 시작됐다.



15년 전 이곳에서는 알카에다 소속 테러리스트에 의해 공중에서 납치된 비행기 두 대가 쌍둥이 고층빌딩을 들이받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했다. 당시 두 개의 빌딩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리에는 메모리얼박물관과 3개의 새로운 고층빌딩, 그리고 추모 공원이 들어섰다.

이날 추모행사에서는 15년 전 비행기의 첫 번째 충돌이 있었던 8시 46분에 맞춰 종이 울렸고 모두 목념의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비행기가 빌딩과 충돌했던 9시 3분에도 종이 울렸다. 또 워싱턴DC에 있는 국방부로 비행기가 돌진했던 9시 37분, 월드트레이드센터 남쪽 빌딩이 무너졌던 9시 59분, 펜실베이니아 주 셀크스빌에서 비행기가 충돌했던 10시 3분, 그리고 월드트레이드센터 북쪽 빌딩이 내려앉았던 10시 28분에도 각각 종이 울렸다.

추모행사에서는 테러로 희생됐거나 구조작업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단상에 올라서 희생자의 이름을 부른 사람에는 유족뿐만 아니라 현 뉴욕시장인 빌 드블라지오와 전 뉴욕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와 루디 줄리아니 등도 포함됐다.

테러로 아들을 잃은 톰 에카비아는 "15년이 지났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다. 아들을 결코 보낼 수 없다"며 절절한 사랑을 호소했고, 역시 아들을 떠나보낸 도시 에스포시토는 "15년이 15초 같았다"며 악몽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심경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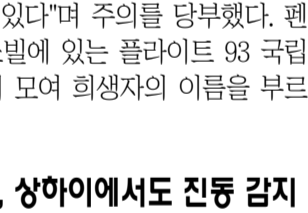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도 그라운드 제로를 방문했다. 이들은 행사에는 참석했지만 2011년 이후 정치인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않는 관례에 따라 마이크를 잡지는 않았으며, 이날 하루 동안 정치공고를 하지 않는 전통에 따라 광고도 중단했다. 클린턴은 행사 도중 어지럼증을 느껴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에서도 추모행사가 열렸다. 백악관에서는 첫 번째 비행기 충돌 시간인 8시 46분에 목념의 시간을 가졌다. 국방부 건물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 참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다양성을 강조한 뒤 "미국의 적들이 다양한 미국인을 서로 갈라놓지 못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9·11 테러리스트들이 노렸던 대상 중 하나였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텔레비전 프로 그램에 나와 "미국은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다"면서도 "단독 또는 자생적인 테러리스트에 의한 잠재적인 테러 위협은 아직도 남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펜실베이니아 주의 셀크스빌에 있는 플라이트 93 국립 기념관에서도 수백 명이 모여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넋을 기렸다.

경주 규모 5.8 지진, 상하이에서도 진동 감지

12일 한국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중국 상하이에서도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고 나타났다.



지진 직후 중국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는 네티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흔들림을 느꼈다", "약간의 어지럼증이 느껴졌다", "상하이의 30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조명이 흔들릴 정도였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중국의 지진관측당국인 지진대는 속보로 한국 경주에서 오후 6시44분 규모 4.9의 지진이 이어 오후 7시32분 규모 5.3의 추가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중국 매체들도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을 인용해 경주 지진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진했다. 신화통신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서울에서도 명확히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는 소식을 올렸다.

이어 각 매체도 경주에서 잇따른 2차례의 지진 소식을 전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강도 만난 92세 할머니, 말씀으로 전도까지

믿음이 좋은, 강도 만난 92세 할머니 이야기가 SNS에서 세삼 화제가 되고 있다. 기독교 커뮤니티 '갯'은 8일 펄스에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펄린 자코비 할머니의 사연을 전했다. 자코비 할머니는 강도를 막고 오히려 그를 전도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이다.



믿음이 좋은, 강도 만난 92세 할머니 이야기가 SNS에서 세삼 화제가 되고 있다. 기독교 커뮤니티 '갯'은 8일 펄스에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펄린 자코비 할머니의 사연을 전했다. 자코비 할머니는 강도를 막고 오히려 그를 전도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이다.

때는 2007년 11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코비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강도가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탔다. 강도는 총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그러자 자코비는 "나는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없다"며 "당신이 나를 빨리 죽이면 죽일수록 나는 천국에 간다. 그리고 당신은 지옥으로 갈 것이다"라고 당당히 맞섰다. 이어 "예수님은 이 차 안에 계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할머니의 말씀에 당황한 강도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자코비는 강도에게 회개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10분 정도 전도를 했다. 그러자 강도는 "오늘은 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자코비는 "밤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기도하세요"라고 권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전부인 10달러를 강도에게 주었다. 자코비는 강도에게 "이 돈을 술을 사는데 쓰지 마세요"라고 말했다고, 강도는 감사해 하면서 돌아갔다.

다시 피말리는 혼전...CNN "트럼프, 무당파서 20% 앞서"

미국 대선(11월 8일)까지 9주밖에 안 남은 지금,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



치 않아 클린턴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전국 지지율에서는 두 후보의 격차가 거의 없어지거나 트럼프의 우세로 역전되기도 한다. 다만 주(州)별 독자 구조에 따른 선거인단 확보에선 클린턴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7일 발표된 CNN방송과 리서치 업체 ORC의 공동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를 찍겠다는 일반 유권자가 45%로 클린턴 지지(43%)보다 많았다. 지난 7월 양당 전당대회 직후 클린턴이 트럼프를 8-10% 포인트 차이로 여유 있게 따돌렸던 것을 감안하면 극적인 상승 44%로 트럼프(41%)에 3% 포인트 앞섰다. 또 실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클린턴을 지목한 비율이 59%로 트럼프(34%)를 앞도했다.

CNN은 일반 유권자 지지율에서 트럼프가 역전한 것을 두고 "레이스가 거의 대등해졌다"고 평가했다. 무당파가 트럼프 쪽으로 기운 덕분에. 이번 조사에서 무당파의 49%가 트럼프를 지지한 반면, 클린턴 지지자는 29%에 그쳤다. 때문에 무당파를 포함한 부동층 표를 상당부분 가져갈 수 있다면 트럼프에게도 승산이 있다.

CNN은 투표 열기가 예전만큼 뜨겁지 않은 것도 트럼프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지지층은 투표의욕이 비교적 낮은 반면, 트럼프 지지층은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있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CNN과 다소 상반되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WP와 리서치 업체 세이메이킹이 한 달간 전미 50개주 판세 조사를 벌인 결과, 클린턴이 확보한 선거인단인 244명으로 당선권(270명)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126명을 얻는 데 그쳤다.

50개주 가운데 클린턴의 지지율이 4% 포인트 이상 앞서는 곳은 20개주이며, 트럼프가 앞서는 곳도 20개 주였다. 우세 주 숫자는 동등이지만, 선거인단이 많이 걸려 있는 대형 주에서 클린턴이 승기를 잡는 탓에 두 후보의 선거인단 숫자 차이가 크게 났다.

두 후보의 지지를 격차가 4% 포인트 미만인 경합주는 10곳이며 여기에는 168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다. 단순 계산으로는 클린턴이 168명 중 26명만 확보하면 승리할 수 있다. 29명이 걸린 플로리다주만 잡아도 이긴다는 얘기다.

그러나 CNN 조사에서처럼 무당파 표심이 트럼프로 쏠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가 경합주 10곳을 씩씩이하고 판세를 뒤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10. 최진태

최진태(崔鎭泰)는 1872년경에 한국에서 태어나 서울 정동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가 정동감리교회에 출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유다. 그런데 하와이 성공회 한인 교회 설립에 관계한 것으로 보아 정동성공회교회에 출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하와이로 오기 직전 마지막 한국에서 거주했던 곳은 서울의 애방정(Ai Pang Chung)이었다. 당시 1892년경 감리교인인 박엘리자벳과 결혼한 그는 네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하와이

재한 미국북감리교 선교부가 9명의 한인 전도사를 하와이에 파송할 때 최진태도 파송 받는다. 최



최진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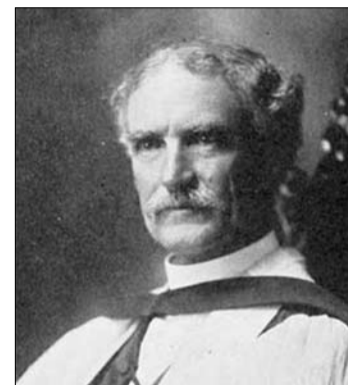
진태(Choi Chin Tai)는 1904년 5월 20일에 가족은 한국에 두고 홀로 '시베리아' 선박에 몸을 싣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1904년 8월과 9월 중 최진태가 하와이를 6주 방문한 내한 미국북감리교 파송 윌리엄 A. 노블 선교사를 가까이에서 만나 3개월 전에 떠났던 고국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한인 성공회

최진태는 1905년 정현규와 김익성 등과 함께 성공회 감독 헨리 B. 레스테릭을 찾아가 한인 성공회 교회를 세우도록 부탁했다. 감독 레스테릭은 최진태가 성격으로

힐로와 올라야 그리고 하카라우

1908년, 최진태는 하와이 섬의 힐로와 올라야로 임명되었고, 1909년까지 2년간 섬겼다. 이곳은 교통이 불편하고 광대한 지역이라 순회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올라야는 파할라와 호노카와 더불어 강하고 활발한 교회였다. 1908년에는 김봉K와 박화T 등 두 명의 권사가, 그리고 1909년에는 김창S와 박화B 등의 두 명의 권사가 최



헨리 B. 레스테릭 신부

1904년 가족 두고 하와이로 파송, 19012년 가족 상봉했으나 이듬해 별세 하와이 섬 돌며 순회목회...사후 부인 박엘리자벳이 구국운동과 전도 열심



파파아로아교회 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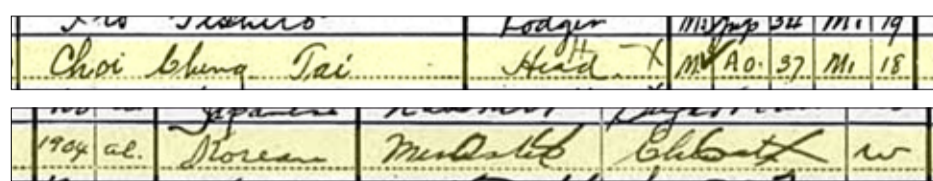
진태와 동역했다. 1908년 현재 올라야교회는 42명의 학습교인, 24명의 정교인, 2명의 유아세례 교인, 27명의 세례교인이 있었고, 2개 처의 주일학교에 14명의 교사가 130명의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다. 본 교회의 교회 재산은 250불에 달했다. 그런데 다음 해에는 한인 노동자의 이동으로 교세가 저조하였는데 34명의 학습교인, 13명의 정교인, 8명의 세례교인이 있었고 3개 처의 총 30명의 주일학교 학생을 5명의 교사가 담당을 했다. 최진태는 1909년, 하와이 섬의

하카라우에도 파송되었다. 1909년 3월 현재 본 교회는 4명의 학습교인, 6명의 정교인, 19명의 세례교인이 있었고, 1개 처의 주일학교 학생 21명을 위하여 8명의 교사와 직원이 수고했다. 1909년 그는 2년차 예비 목사였고, 김철S 권사가 그의 목회를 협력했다.

최진태는 힐로 한인소학교를 운영했다. 본 학교는 1907년 4월에 설립 되었으므로 최진태가 이곳에 부임하기 1년 전이었다. 1906년 5월에 올라야 농장에서 공덕화와 신판석 등의 발기로 조직된 협성단이 1907년 9월에 하와이 24개 단체 대표자와 더불어 결성한 '한인합성협회'에서 최진태도 관여했을 것이다. 하카라우가 조직한 '동회'도 위의 '한인합성협회'에 가입하였으므로 '한인합성협회'의 하카라우 지부에서도 최진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진태는 1908년 미국북감리교

로아에는 이미 예배당이 있었다. 1910년 하와이 인구조사에 따르면 최진태(Choi Ching Tai)로 기록된 그는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하노카와와 쿠쿠이하엘리까지 순회목회를 했다. 본 인구조사를 통하여 최진태가 1904년에 하와이로 이주하였고, 37세의 기혼자인 그가 교회 목사로 활동하고 있음



최진태, 1910년 인구조사

도 추가로 알게 된다. 호노카와는 항일운동과 일화배척을 추진한 '동회'가 결성된 곳으로 본 동회가 1907년 9월에 결성된 '한인합성협회'에 통합되었으므로 최진태도 본 '한인합성협회'에서 활동했을 것이 틀림없다. 1910년 3월 20일에 하와이 지방 연회에서 이경직, 홍치범, 김영식,

최진태의 부인 최엘리자벳은 1912년에 네 명의 딸과 함께 1904년에 혼자 하와이로 온 남편 최진태와 합류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그런데 최진태는 1913년 마우이 섬의 스프렉셀빌에서 소천했다. 향년 41세였다. 가족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지 1년이 되던 때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박엘리자벳

최엘리자벳은 최진태의 사후 본인의 성을 되찾아 박엘리자벳으로 불렸다. 그녀는 호놀룰루로 이주하여 1914년에 이승만이 시작한 한인중앙학교 여학생 기숙사 사감으로 활동했다.

박엘리자벳의 구국운동은 1913년 4월 기존의 4개의 여성단체가 통합하여 하와이 호놀룰루에 '대한부인회'가 결성될 때 기인 중 한 사람이 되었을 때부터다. 그녀는 본 기관이 추구하는 자녀의 국어 교육 장려, 가정 일용사물의 일화 배척, 교회와 사회단체 후원 및 재난 동포 구제 노력을 꾀했다. 본회가 카우아이 섬 콜로아에 첫 지부를 설치할 때 1907년에 그곳에

하와이연회 산하의 '성경 및 소책자' 위원회에 배속 받아 일본인 E. 토키마사와 한국인 이경직과 함께 섬겼다. 본회는 전례에 비해 상당한 효과를 생산했고, 조셉 H. 리차드스 부인



대한부인회

이 쓴 '와 보라'가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권장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지 않았다. 본 위원회는 1909년에 한국에서 성경과 소책자를 수입하여 판매할 계획을 하였고, 한국에서 구약 성경이 출판될 것을 크게 기대하였다.

스프렉셀빌

최진태는 1911년에는 마우이 섬의 스프렉셀빌로 그의 임지를 옮겼다. 그는 1912년까지 2년간 이곳에서 목회했다. 이곳은 홍치범이 목회했던 교회로 이미 예배당이 있었다.

소천

호노카와, 쿠쿠이하엘리, 파파아로아

최진태의 1910년 사역지는 하와이 섬의 하노카와, 쿠쿠이하엘리 그리고 파파아로아다. 파파아

서 목회한 남편 최진태의 인맥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 해 9월부터 전도위원이 되어 그녀는 조매륜과 더불어 전도에도 열심이었다. 그 후 '부인구제회'와 '동지회'에도 크게 활동하였는데 그녀가 독립유공자로 추서될 만했다.

박엘리자벳은 1919년 이승만의 소개로 국민회 회장이었던 안현경과 재혼했다.

damien.sohn@gmail.com

부목사 청빙

뉴욕만나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부목사(1인)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자격요건

- 1) KAPC(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교단에 가입된 분 또는 가입 가능한 분 (KAPC 교단에서 정하는 신학대학원 졸업한 분)
- 2) 개혁주의(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따르는 분
- 3) 교회 행사, 행정 및 교육 등에 경험이 있는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가족사진 제출)
- 2) 자기 소개서(사역 계획 내용 포함)
- 3) 목사 안수 증명서
- 4)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 5) 최근 설교 1편(CD 또는 DVD)
- 6) 추천서 1통

제출기간

마감: 2016년 10월 31일(월)

제출 및 문의(이메일 또는 우편)

- 1) 정관호 목사 / 이메일 kwanhochung@hotmail.com
- 2) 우편 제출 / Pastor Kwan Ho Chung
26-06 163 St. Flushing, NY 11358
- 3) 문의 전화 (917)750-817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만나교회

170-0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담임목사 청빙

Haddonfield, New Jersey 에 위치한 뉴저지 동산 장로 교회에서 신실한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South NJ)

지원자격

- 개혁주의 신학과 보수 장로 교단 소속 신학교 졸업하신 분
-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목회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목사안수 후 3년 이상 목회경력이 있고 이민목회와 2세 교육에 사명감과 비전을 가지신 분
- 한국어와 영어로 설교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 신학교 졸업 증명서와 목사 안수 증명서(Certification of Ordination)
- 자기 및 가족(사모) 소개서, 가족사진
- 목회 계획서
- 최근 설교 동영상 2 회 또는 설교 동영상 볼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
- 기타 목사님 소개에 도움이 될 보조 자료

제출처 및 제출 마감일

- 서류는 우편 혹은 이메일 첨부파일 방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필요 시 추후 보완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사례 및 제반 청빙 조건은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분에 한해 공개합니다.

[접수 및 연락처]

E-Mail: dongsanchurch@yahoo.com
접수마감: 2016년 9월 30일

뉴저지 동산 장로 교회 청빙위원회



성경도 신앙 (15)

청교도들의 예배 (4)

3. 성경적인 예배 요소

성경적인 예배 요소는 무엇일까요? 구약의 예배에서는 단순히 제물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자도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히 보시는 존재이다. 이처럼 신약의 예배도 예배 행위가 예배드리는 자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자가 감당해야 할 예배의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자의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몸과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성도들을 위해 권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명함으로 이것이 진정 합당한 영적인 예배임을 밝히고 있다(롬 12:1). 그러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요소가 무엇일까? 과거의 개혁주의 지도자와 교회에서 사용한 예배의 순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먼저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용했던 예배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예배의 부름 (나)죄의 고백과 용서를 위한 기도 (다)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라)성경 읽기(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한 장씩) (마)강론 및 성례 (바)헌금 (사)긴 기도 (자)기도나 시도(신경 및 심계명 암송 (아)시편 찬송 (자)축복 선언

이 부분 중에서 성례에 대해서는 사려 깊은 결정을 내린 것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개혁교회에서 주일마다 사도적 방식에 따라 성찬식을 거행함으로써 위로와 은혜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매주 성찬식을 거행할 수 없기에 월 1회 정도 시행하되, 제네바에 있는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시행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시 의회는 1년에 4번이면 충분하다고 결의함으로써 성찬절, 부활절, 오순절, 9월 첫 주일에 시행하게 했다.

성찬식이 되면 그 전 주간에 목사와 장로가 함께 각 가정을 심방하여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와 종교적인 지식을 점검하고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사랑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 소심하여 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기에 충분한 주님의 자비하심을 권하였다. 성찬의 딱은 목사가 돌리고 장로와 집사는 잔을 돌렸다.

2)위 예배 순서는 스코틀랜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몸과 환경까지 드리는 것 예배순서는 찬송, 기도, 말씀 선포, 성경읽기 기본으로 약간 차이

(Scotland)에서 존 녹스(John Knox)가 제정한 공공예배순서 혹은 녹스 예식서(The Book of Common Order, Knox' Liturgy)에 반영되어 1648년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신앙고백서의 예배 모범 지침서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되었다. 이것이 현대의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예배순서라고 할 수 있다.

(가)예배의 부름 (나)은혜와 조명을 위한 기도 (다)성경읽기(신약과 구약에서 한 장씩) (라)시편 찬송 (마)회개와 도고 기도 (바)성경 (사)감사와 간구의 기도 (아)긴 기도와 주기도 암송 (자)시편찬송 (차)축복선언.

칼빈의 예배순서와 스코틀랜드 장로교 예배 순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찬송, 기도, 말씀 선포, 성경읽기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예배 순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주기도나 심계명, 사도신경은 주로 성례식과 관련하여 고백되었다. 헌금 시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특이하다. 칼빈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예배 순서에 포함하는 것을 용납했지만, 1549년 이후에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자신의 예배순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올 때 헌금함에 헌금하게 했다.

위의 예배 순서는 예배 기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 특별하다. 우리에게 익숙한 목회 기도는 장로가 아니라 목사가 했다. 또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와 회개, 사죄를 위한 기도 및 도고의 기도를 나누어 대표 기도를 두 번 했다. 그러나 지금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그대로 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목사가 그 모든 기도를 아울러 한 번의 목회 기도로 대체하

고 있다.

3)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예배의 요소에 대한 지점은 다음과 같다.

(가)감사의 기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배의 특별한 요소이다(빌4:6).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며(시65:2),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사리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도이다. 만일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요 14:13,14; 빌2:5; 롬8:26; 요일5:14; 시47:7; 전5:1,2; 히 12:28; 창18:27; 약1:6,7, 5:16; 막11:24; 마6:12,14,15; 골4:2; 엡6:18; 고전14:14). 기도는 합법적인 것들과(요일5:14) 생존하는 사람들과 장차 생존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되(딤후2:1,2; 요 17:20; 삼하7:29; 룻4:12), 죽은 자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된다(요일5:16).

(나)성경 읽기, 설교, 찬양, 성례

성경은 경외감으로 읽어야 한다(행15:21; 계1:3). 건전한 설교(딤후4:2)와 이해와 신앙과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약 1:22; 행10:33; 마13:19; 히4:2; 사66:2), 마음의 은혜로 시편을 찬양하는 것(골3:16; 엡5:19; 약 5:13),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올바르게 거행하고 합당하게 받는 것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통상적인 예배 요소를 이다(마28:19; 고전11:23-29; 행 2:42).

(다)종교적 맹세, 서원, 신성한 금식, 특별 감사

종교적인 맹세(신6:13; 느 10:29), 서원(사19:21; 전5:4,5), 신성한 금식(욥3:12; 에4:16; 마 9:15; 고전7:5), 그리고 특별한 경우의 감사들은(시107편; 에 7:5) 적당한 시기에 몇 차례 거룩하고도 종교적인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히12:28).

4)위와 같은 예배들에 대한 모범 지침서의 사항들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가)성경읽기
성경읽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성결하게 되고 그분의 백성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목사나 교사들이 해야 한다. 그러나 외경(천주교에서 사용)은 단 하나도 허용될 수 없고, 오직 신약 성경 66권에서 읽되 가장 잘 번역된 모국어로 읽어야 하며(천주교에서는 알지 못하는 라틴어를 사용함), 무지한 자나 배운 자 모두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얼마나 많이 읽을 것인가는 목사의 판단에 맡겼다. 그러나 대체로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씩 읽었다.

(나)공기 기도
공기는 말씀을 읽고 난 후에, 그리고 시편 찬송을 부르고 나서 설교를 담당한 목사가 청중들에게 말씀의 효력을 말하여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갈급해야 하는 심령을 가지도록 간구했다. 또한 말씀 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했다.

younsuklee@hotmail.com



성공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잠재적 가능성을 찾아 탁월한 성공만들기

시각장애를 뛰어넘어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에 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고(故) 강영우 박사(1942-2012)이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정신을 삶으로 보여준 강영우 박사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열다섯 살 때 날아오는 축구공에 두 눈을 맞아 시력을 잃게 되면서 평범했던 그의 삶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아들이 실명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얼마 후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 이미 아버지를 여읜 상태에서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누나는 밤낮없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 두 눈이 실명되고 가족마저 떠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비통한 마음을 부여잡고 수없이 이렇게 외쳤다. '앞도 못보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내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서관에서 점자책을 읽다가 한 문장을 발견했다. '가지지 못한 한 가지에 불평하기보다 가진 열 가지에 감사하라'. '그래!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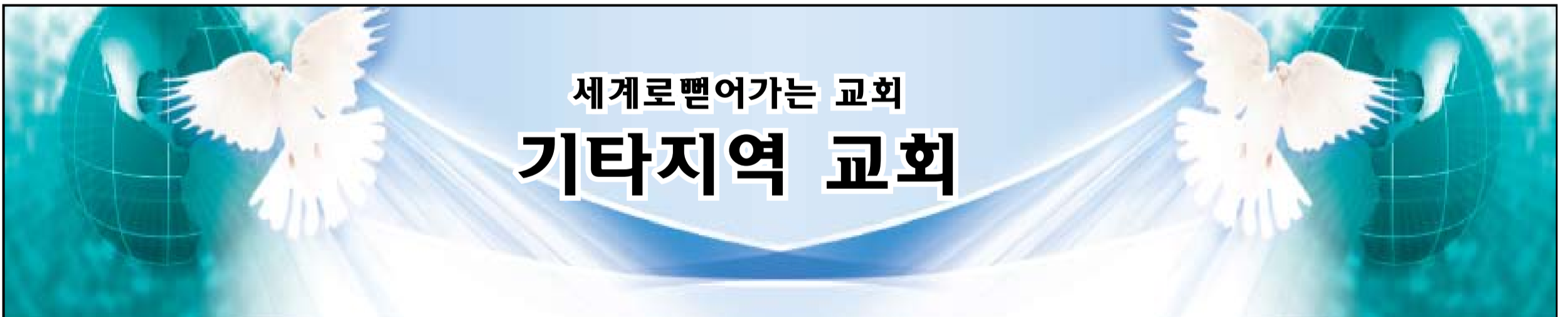
강영우 박사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관해 불평하던 것을 멈추고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난관을 모두 극복하고 2008년 국제로터리 인권상을 수상하며 UN세계장애위원회에서 부의장을 지내는 등 국제 사회와 한국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이다. 좌절 속에서는 그 어떤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다. 불평하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쁘고 즐거워할 때 우리의 숨어있던 잠재력이 현실에서 문제를 도파하는 능력으로 발휘된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보다 현재 자신이 있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리며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끊임없이 개발했다.

가능성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면에 숨어 있는 잠재력이 생각으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드러나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힘, 그것이 바로 가능성이다. 가능성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특별한 잠재력이 있다. 단, 가능성은 주위에 조인자나 멘토가 있을 때 더 쉽게 개발될 수 있다. 강영우 박사의 아내는 남편이 인생의 고비를 맞을 때마다 고통의 순간을 함께 하며 이렇게 조언했다. '지금의 고난은 반드시 성공으로 바뀔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연구에 몰두하면서 지금까지 노력하시면 되요.' 남편의 가능성을 믿어준 아내의 진심어린 조언은 강영우 박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강영우 박사는 훗날 자신의 성공에 대해 아내의 조언이 자신으로 하여금 꿈을 향한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게 했다고 고백했다.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가족과 같은 가까운 관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가능하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GE(General Electric)'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사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1981년, GE의 CEO였던 잭 웰치(Jack Welch)는 '최고의 인재는 뽑을 수 없고 최고의 인재로 키울 수 있다면 기업은 성공할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사원들의 잠재력을 끌어 올리고자 노력했다. 그는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한사람 한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직원들에게 멘토를 배정하여 잠재력을 발견하게 했다. 결과는 아주 좋았다. 사원들은 눈에 띄게 성장했고 평범한 사원도 A급 사원으로 변신했다. 직원들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발전시켜 줌으로 GE는 세계 1위(첨단 기계설비 제조분야)의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좋은 성품이란 갈등과 위기의 상황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개인과 기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힘은 좋은 성품에 달려있다. '나에겐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다'고 불평하고 좌절했던 생각을 멈추고 기쁨의 성품으로 나만이 가진 강점과 잠재력에 주목해보자.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202)579-7576, Fax: (2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월 화 목 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넬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종교대학예배: 오전 10시 (한), (영) 오전 11시 캠퍼스, 유년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10:45 중, 고등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회: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psattle.org	안다루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8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hs.com	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915)542-0288, Fax: (915)542-9037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킬린노드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주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2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scotacoma.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원년예배: 오후 7: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노회장 선출, 총대선출, 헌법개정안 심의
KPCA 서노회, 서중노회 정기노회

서노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노회(노회장 직무대행 김광철 목사)는 제87회 정기노회를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립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개최하고 신임 노회장에 김신 목사를 선출했다.

노회장 선출, 총대선출, 헌법개정안 심의
이날 노회는 목사안수식도 함께 열렸는데 갈보리믿음교회 김종선 전도사, 영일한기독교회 이상수 전도사, 주향교회 이승민 전도사가 안수를 받았다.

△노회장 김신 △목사부노회장 김동원 △장로부노회장 이선규 △서기 장요원 △부서기 박경희 △회록서기 이현동 △회록부서기 임봉환 △회계 변경호 장로 △부회계장 봉진 장로.
서중노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중노회(노회장 라세엽 목사) 제31회 정기노회가 12일과 13일 양일간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열렸다.

"우리는 예수님 가치를 가진 자"
총현선교교회 강균성 간증찬양집회

그를 노을의 강균성 간증찬양집회가 11일 오전 11시30분 총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균성은 세상에서 성공한, 축복받은 연예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가진 자로서의 삶을 고백하고, 그 길을 함께 걷기를 당부했다.



총현선교교회에서 열린 가수 강균성 찬양 간증집회에서 강균성 씨가 찬양하고 있다

가진 자라는 것을 뛰어넘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균성은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를 하고 예배를 잘 드려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 이렇게 쓰임을 받았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연결시키면 우리의 신앙은 틀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성공주의이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게 되고, 더 많아지게 됐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더 써내려져 갔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믿음생활을 무엇이 이뤄지는 것으로 연결시키지 말라. 믿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박준호 기자)



KPCA 제87회 정기노회에서 노회장에 선출된 김신 목사가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KPCA 제31회 서중노회가 남가주동신교회에서 열렸다



KCCD가 주최한 제15회 주택구입 박람회

제15회 KCCD 주택구입 박람회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가 주최한 제15회 주택구입 박람회가 10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임마누엘 장로교회(3300 Wilshire Blvd. LA)에서 개최됐다.

방법, 6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 융자 회사를 통해 3대1 매칭을 통한 1만5천 달러로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첫 주택구입자들을 위한 융자상품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선한목자교회 부흥성회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는 부흥성회를 '그래 괜찮아, 다시 시작해!'라는 주제로 23일(금)부터 25일(주)까지 개최한다.

임마누엘장로교회 말씀잔치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손원배 목사)는 '조용히 살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잔치를 16일(금)부터 18일(주)까지 개최한다.

한미특수교육센터 무료부모 교육세미나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장 13353 Alondra Blvd, #110, Santa Fe Springs)는 무료부모 교육세미나를 23일(금)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남가주주님의교회 설립 감사예배 및 담임목사 환영예배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는 설립 33주년 감사예배 및 제5대 김낙인 담임목사 환영예배를 18일(주) 오후 4시에 갖는다.

피아노반주자 모집
주립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는 주일 2부 예배(오전 11시)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한다.

2016 주택옹자 무료세미나
2016 주택옹자 무료세미나가 2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에서 개최한다.



로스펠리츠교회에서 열린 행복축제에서 본교회 시온성가대가 찬양하고 있다

로스펠리츠교회 2016 행복축제

로스펠리츠교회(담임 신병욱 목사)는 2016행복축제를 11일 오후 2시 개최했다.
신병욱 목사는 "하나님께서 할리우드에서 믿음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우리를 세상 문화의 중심지인 할리우드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요소를 구축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꿈꾸며 4년전 첫발을 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행복축제는 할리우드를 '할리우드'로 변모시키는 꿈을 가지고 개최했으며 이웃은 타이교회 지체들과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with their names,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Churches includ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주님의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동문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베델한인교회, 복음장로교회, 세계소망교회, 요셉선교교회, 엘바인침례교회, 일셔크리스천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중은마을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운교회,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조용기 원로목사 초청성회

날짜: 2016년 10월 10일(월)

장소: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el. 323-913-4499

1958년 전쟁 직후의 황폐함 속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50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사역하여 세계 역사상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이루었고 세계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세계 복음화를 위해 지구를 약 115바퀴 돌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40년 전 설립한 베데스다 대학의 개교 40주년을 기념하여 이곳을 방문하시므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남을 귀중한 성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에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베데스다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 행사세부일정

1부 - 개교 40주년 축하 및 후원의 밤
5:00PM - 6:30PM

(초대받으신 분에 한하여 참석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분은 베데스다대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2부 - 축복부흥성회(설교: 조용기 목사)
7:30PM - 9:00PM

(다민족 성회로 모든 민족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며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가능합니다.)

주최 : 베데스다대학교
 Bethesda University